

3장

화작의 두 번째 페이지

38번~42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사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입니다. 물론 정답률은 36번이나 45번과 같이 매우 낮은 문제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글이 가장 길고 문제 수가 가장 많기에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간을 상당히 쓸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는 지문의 유형이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가끔씩 이 3가지를 벗어나는 지문의 형태가 나오기는 하나 크게 벗어나진 않고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문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보단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정리하여 놓는다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구사하게 될 겁니다.

우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지문 골격은 글+대화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해당 글이 어떤 글인지 해당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달라지긴 하나 기본 골격은 모두 같습니다. 우선 이 개념을 잡아둔 상태에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42]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참여한 반대 측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 오늘 토론의 논제는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초보 운전자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으로는 면허 취득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초보 운전자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기준 1년 미만자’로 정의하여 입론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이 전체 운전자의 평균에 비해 18%p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초보 운전 표지 의무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의무화하여 초보임을 알리는 것은 초보 운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표지의 내용과 형식을 자율에 맡겨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초보인데 보태 준 거 있어?’라는 표지를 커다랗게 붙인 차를 봤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또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해 초보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자 : 이어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 질문에 앞서 방금 찬성 측이 한 발언은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초보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통계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찬성 1 : 2022년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반대 2 : ㉡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까요?

찬성 1 : 경력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 2 : 배려하는 태도, 중요하죠. 그런데 ㉢ 일부 경력 운전자들의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성 1 : 표지를 보고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은 제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운전 문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전 문화 역시 표지 부착 의무화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 : 저희도 운전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텐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요?

찬성 1 :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2 : ㉤ 표지 의무화는 제재를 가한다는 뜻인데,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찬성 1 : (잠시 생각한 후)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이어서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나)

이번 토론의 논제를 보고 나도 내년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겨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 친구와 한 팀이 되어 토론을 준비했다.

먼저 쟁점을 분석한 후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에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려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찾아 저장했다. 그리고 ‘초보 스티커, 되레 난폭 운전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표지 부착 부작용 사례를 다룬 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집했다. 이후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 운전 행태, 교통안전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교통 문화 지수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받았다. 그다음 날에도 자료를 찾으러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표지부착은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임시 면허 기간을 두어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이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문 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 대부분이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찾아 스크랩했다.

막상 토론을 하려니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 편이라 걱정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처럼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그 덕분에 토론에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한편 토론 후 상호 평가를 해 보니,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한 반면 나는 찬성 측 반론을 미흡하게 반박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이런 토론을 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자료를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14 / 2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42번 첫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토론+소감입니다. 특정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글과 해당 토론을 감상한 학생의 소감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화법’을 드러내주는 토론의 형태를, 하나는 ‘작문’을 드러내주는 소감문의 형태를 선택한 겁니다. 우선 토론부터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2. 토론은 결국 찬성과 반대편이 나뉘어져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문제는 아래의 핵심적인 특징에 맞춰 제작됩니다.

- ① 특정입장 입론의 말하기 방식
- ② 반대신문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
- ③ 찬성과 반대 공통된 입장
- ④ 사회자의 역할(거의 안나옴)

우선 첫 번째 문제 유형인 특정입장 입론의 말하기 방식에선 선지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의 방식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니까요. 그래서 100%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빈출되는 포인트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 ① 개념정의
- ② 자료 사용(구체적 수치, 전문가의 말 인용)
- ③ 사례 제시
- ④ 논의의 필요성 드러내기
- ⑤ 자신의 의견이 실행되었을 때 기대효과

이렇게 다섯가지정도가 빈출요소입니다. 만약 지문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보인다면 본인만의 기호로 혹은 밑줄로 표시 해두고 넘어가는게 굉장히 유리할겁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인 반대 신문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은 주로 ㄱㄴㄷ으로 특정문장에 밑줄을 그어 놓고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출제됩니다. 지점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반박하였는가를 주로 물어보죠. 물론 ㄱㄴㄷ으로 지점을 정해놓지 않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더 어렵겠죠 우리가 직접 그 지점들을 찾아야 하니까요.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주장'이기에 내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구요. 그래서 특정할 순 없지만 빈출되는 요소를 잡을 순 있습니다.

- ①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거론하며 반박
- ② 자료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문 제기
- ③ 특정 내용에 대한 정당성 판단
- ④ 상대방 대안의 실행 가능 여부

4개의 출제포인트를 다루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 유형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반대 신문에서 4가지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보고 각각 아 애는 이렇게 선지로 나오겠네~정도로 변환시켜주고 가면 됩니다. 예시로 "찬성 측께서 제시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를 보고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구나! 라는 선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지문에서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 할까요?"라고 제시되면 사실 엄청나게 기출 분석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해당 선지가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3번째 유형의 선지입니다. 이럴 땐 그냥 선지가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보고 선지랑 빠르게 매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선지는 초보 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문의 문장을 보고 선지와 빠르게 매치시켜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거죠. 만약 ㄱㄴㄷ 문제가 아닌 지문 전체로 범위를 줬다면 반대 측의 입론이나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의 입장을 반박한 문장들을 전부 찾아서 밑줄 그어놓는 것이 유리할겁니다. 그래야만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풀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안하고 가면 이제 지문 다시 읽으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출제 포인트를 변환하되 특정 내용에 대한 정상성 판단을 시킨 선지는 선지와 지문의 문장을 빠르게 매치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유형인 찬성과 반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대화를 보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문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공통된 포인트들을 찾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해당 선지는 전부 토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니 지문에서 의식적으로 미리 공통점을 찾아 놓고 가야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겁니다.

네 번째 유형인 사회장의 역할을 사실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음에 볼 유형인 토의 지문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특정 학생의 역할이라는 포인트로 바뀌져 출제됩니다. 토론에선 사실 논제 소개하고 순서대로 토론 진행시키는 것 혹은 가끔씩 입론하고 내용 요약해주는 정도밖에 만나와서 출제되면 너무 쉽게 출제될 수 밖에 없기에 따로 공략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로 (나)지문 포지션에서 나오는 소감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땅히 출제되어야만 하는 포인트들이 출제됩니다. 결국 토론을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을 적는 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글이 적혀져야만 합니다.

- 초반 해당 토론을 보게 된 계기
- 중반 토론의 과정을 상세하게 적으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 평가(소감)하기
- 후반 토론의 입장 중 본인이 생각하는 더 타당한 입장 제시

거의 대부분의 글이 위와 같은 형태로 글이 쓰여집니다. 사실 당연하죠. 토론에 대한 소감문이니 토론의 상세 과정을 적어 놓을거고 거기서 본인은 어떤 것을 느꼈고 어느 쪽 입장이 더 타당한 것 같은지 본인의 '소감'을 적어야 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1. 토론의 과정을 서술하며 토론을 보며 느낀 글쓴이의 평가

+)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각 토론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성을 따지며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 토론을 보고 나서 느낀 자신의 입장

+) 토론 과정을 서술하며 각각의 근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토론 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미 해당 내용을 (가)지문에서 봤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지문 읽을 땐 내용을 거의 배제한 채 빠르게 읽어내려 가되 토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들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는 형태로 글을 빠르게 읽어내려 간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의: 토론에 참여한 친구의 토론 참여 소감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감문이기엔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실전적용

[3~7]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 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반대 2: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찬성 1: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학생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찬성 1: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 결선 투표제도 1차 투표는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반대 1: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결선 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민주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
 찬성 1: 반대 측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고 등 학교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소 재설치 등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 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 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 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 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 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2 / 16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효율적 문제 풀이 순서>

우선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지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3번을 보니 지문을 읽으며 의도적으로 두 입장의 공통점이 나온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놔야겠네요. 4번문제는 선지를 보면 문학의 단락 문제처럼 특정 참가자의 특정 발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특정 발언에 한정해서만 출제를 하는 거지 다른 파트의 부분들을 엮어서 출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물어보는 발언들을 볼 때마다 선지로 돌아가서 푸는게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은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5번은 아예 하나의 입장으로 한정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찬성1의 입론까지 보고 5번 문제를 풀어내고 반대신문부터 나올 때마다 4번선지를 가서 하나씩 지우고 그 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찾아내고 바로 3번의 답을 찍으면 가장 효율적인 풀이겠네요.

(나)지문에 대해선 6번과 7번 문제가 있네요. 6번 문제는 해당 유형에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글의 구조가 첫 문단에서 토론회의 참여동기나 토론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뒤부터 토론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며 각각의 토론을 평가하는 것이니 그 글의 전개과정에 따라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에 대해 물어보니 그냥 적당히 단락 별로 끊고 읽어서 바로 확인하는게 나아 보이네요. 7번문제는 특정 기준을 주고 특정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니 찬성 측 입론에 대한 평가와 반성 측 입론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지문을 끊어 읽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네요.

<(가)지문 분석>

지문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사회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지문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 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작은 비문학처럼 글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글의 구조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단순 다수제가 뭐지 이런 생각보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구나~로 글을 어떤 형태로 썼는지로 변환시켜 읽어야 합니다.

지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결선 투표제가 뭔지, 단순 다수제랑 어떤 점이 대립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선 투표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변환시키고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지문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해결책의 도입시 생기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정도로 변환시키면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5번 문제를 풀러 갑시다.

지문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해결책의 도입시 생기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정도로 변환시키면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5번 문제를 풀러 갑시다.

5. <보기>의 ㉠~㉤ 중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체로 입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끝으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문제의 구조를 보면 전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보다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죠? 이 문장이 글의 어떤 도 구조서 역할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린 지문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출제될 포인트를 지문에 서 미리 캐치했고 선지를 보고 바로 지워낼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개념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기대효과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박에 대비한 해결방안은 없었네요. 바로 답을 4번으로 찍고 갑니다.

지문

사회자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반대2: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찬성 1 :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여기서부터 4번 문제랑 연결이 되죠? 1번선지를 바로 처리하고 갑시다. 지문의 내용을 보고 바로 출제포인트로 변환시킬 수 없어도 괜찮아요. 기억이 휘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지를 보니 미리 잡지 않아도 선지를 보면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4번 문제 선지 1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여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반대 2는 상대방이 말한 결선 투표제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하고 있고 찬성 1은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네요. 바로 맞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사회자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1: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가볍게 아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정도로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문

학생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 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우리 두 입장의 공통점도 찾아야 합니다. 두 입장 모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가볍게 잡고 바로 3번 문제를 풀어 줍니다.

3. (가)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 ③ 학생회장 선거에 새로운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④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선거 홍보 기간을 늘려야 한다.
- ⑤ 선거 기간이 길어지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다.

지문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만 잡고 바로 4번의 2번선지를 봐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선지 2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문장을 물어보고 있네요. 해당 부분에서 문제점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문제점이었죠? 해당 선지가 충족 되려면 찬성 1이 제기했던 문제점인 단순 다수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2번선지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답이 나온 순간 나머지 지문을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가)에 대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빠르게 나머지 지문을 읽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지문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읽으실 때도 별다른 행동없이 빠르게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나)지문 분석>

지문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갔었죠. 가볍게 변환시키고 갈게요. 토론회의 목적과 글을 쓴 동기를 제시하고 있네요. 바로 6번의 1번선지를 지워줍니다.

6번 문제 선지 1

①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과 관련하여 글을 쓴 동기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지문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지문을 읽으며 생각해야 할건 우리 이미 이 내용을 한번 봤다는 겁니다. 토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글에서 중요한 핀트가 아닙니다. 출제 데이터베이스화를 기반으로 보자면 이 글쓴이가 토론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한 핀트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문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 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용 절대 집중하지 마세요. 구조로 변환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출제포인트죠. 이게 ‘평가’니까요.

7번 문제 선지 1

① ㉓: 필자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로 문제는 해당 문단 다 읽고 푸는겁니다. 해설의 편의상 바로 선지를 넣었지만 실제 문제 풀 땐 한 문단 다 읽고 푸는 겁니다

지문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 되지않아설득력이부족하다. 또한우리학교는현재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평가 부분에 집중하고 이를 변환해줍니다.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 토론의 발생배경을 언급하며 반대측 주장에 대한 한계제시 정도로 잡을 수 있겠네요.

7. 다음은 (나)의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토론 평가 항목이다. 글을 쓴 후, 이를 바탕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평가	㉓ 찬성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㉔ 반대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㉕ 입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㉖ 반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① ㉓: 필자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② ㉔: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주장한 투표 횟수와 신중한 투표권 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③ ㉕: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현행 투표제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④ ㉖: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 단계에서 상대측의 주장대로 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박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 ⑤ ㉗: 필자는 반대 측이 반론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를 들고 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7번 문제 선지 2

② ㉔: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주장한 투표 횟수와 신중한투표권 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로 문제는 해당 문단 다 읽고 푸는겁니다. 해설의 편의상 바로 선지를 넣었지만 실제 문제 풀 땐 한 문단 다 읽고 푸는 겁니다

7번 문제 선지 4

④ ㉖: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 단계에서 상대측의 주장대로 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박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상대측의 주장대로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해당 선지가 정답이네요.

지문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 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말 그대로 해결방안 제시못함 정도로 잡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7번 문제의 1234번, 6번의 2번선지를 풀어냅니다.

7번 문제 선지 3

③ ㉕: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현행 투표제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6.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과 관련하여 글을 쓴 동기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①
- 찬성 측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②
- 토론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③
- 찬반 양측의 입장 중 내 입장을 선택하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아야겠어. ④
-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내 생각을 밝히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⑤

6번 문제 선지 2

② 찬성 측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찬성 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수업시간 때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2번선지도 적절한 선지네요.

지문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사실상 이 문장은 필요가 없죠. 윗 문단까지 읽었을 때 7번문제가 끝났고 6번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는 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 해당 문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풀이와 데이터베이스화면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별해내고 정보량을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6번문제 남은 선지인 3,4번만 쑥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5번은 어차피 마지막 문단에 나올거라는걸 알고 있으니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문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 보니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

내용 전혀 신경쓰지 말고 3번, 4번선지만 타겟팅합시다. 3번선지 내용 나왔네요.

6번 문제 선지 3

③ 토론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찬성 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수업시간 때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2번선지도 적절한 선지네요.

지문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내용 쪽 읽으시고 답을 4번으로 찍어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글을 다 읽자마자 문제가 다 끝났네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텐데.. 이렇게 풀어야 화작을 10분내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보량은 상대적입니다. 화작이란 과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기출을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38~42번 두번째 케이스>

다음 케이스를 봐볼까요? 이번 케이스는 토의(계획세우기)+ 작문(토의 계획대로 글 작성하기)입니다. (가)에선 대부분 과제으로써 제시된 글을 작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토의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어떤 표현을 사용할건지, 어떤 내용을 처음에 쓰고 어떻게 마무리할건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의 작성 계획을 토의를 통해 기획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글이 제시된다면 어떤 포인트를 물어볼까요? 우선 ‘토의’(토론)이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포인트들이 출제됩니다.

1. 토론에서 특정학생에 대한 설명

2. 토론과정(반박,동의, 추가를 키워드로)

특정학생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토의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반박하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토의(토론)의 본질이니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로 글을 작성한게 (나)지문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토의(토론)에서 계획된 것들이 어떻게 글에 적용되는지 즉 작문의 과정을 물어보겠죠. 출제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론에서 나온 내용 적용

(지문 적용일 경우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혹은 보기에서자료를 통해 적용하고 물어보는 형태)

(나)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용해야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지문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의를 통해 계획한 걸 글을 통해 적용하는 형태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읽을 땐 이미 읽은 내용이니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되겠네요!

+ 물론 지문에 따라 (가)에서 글이 나오고 (나)에서 앞에서 본 글을 수정하는 형태의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같기에 생략을 생략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실전적용

[38 ~ 42] (가)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자료 좀 찾아봤어?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글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 디스토피아의 정의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학생 1 :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학생 3 : 나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형상화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 2 :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그런데 작품 속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인 장면은 문제가 된단던데?
 학생 3 :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학생 1 :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학생 3 :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학생 2 :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 읽어 봤어. 멋진 신세계, 라는 작품인데 과학 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서 놀라웠어.
 학생 3 : ㉢어, 나도 그 소설 봤는데,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학생 2 :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에도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학생 1 :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뭐지 알려 줄래?
 학생 3 :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상을 비판한다는 거지.
 학생 1 :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 3 :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재의 사회 문제가 극대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의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학생 1 : 아,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학생 2 : 응,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학생 1 : 그래, 일단 내가 초고를 쓸 테니 나중에 점점 부탁해. 모두들 고마워.

(나)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몰이가 심상치 않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전 세계를 사로잡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유토피아와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에서는 어떤 형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이 극대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 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을 소재로,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미래상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물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때문에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가령, 디스토피아 작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이에 종속당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며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효율적 문제 풀이 순서>

우선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가)지문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38번과 39번입니다. 38번은 학생 1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봤다는 것은 선지 중 4개가 적절한 선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학생1이 막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 1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정보를 제시해야만 하니 학생1이 말할 때마다 선지가 하나씩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38번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학생 1이 말할 때마다 38번을 바로바로 확인하는게 유리하겠네요. 39번은 그냥 ㄱㄴㄷ문제로 명확하게 출제될 지점을 정해줬으니 바로바로 나올때마다 선지하나씩 지우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로 해야할 건 역시 (나)지문을 염두해두어야겠죠. 40번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지문을 읽으면서 글의 계획이 나온 부분은 가능하면 넘버링을 쳐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내용이 (나)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42번도 커버가 될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가)지문 분석>

지문

학생1: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자료 좀 찾아봤어?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글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화작을 풀고 있습니다. 절대 내용에 집중하면 안됩니다. 지문을 보고 말의 구조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토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볍게 읽고 38번에 1번선지를 바로 확인할게요.

38.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 ②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 ④ 대화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 ⑤ 대화 참여자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심화한다.

지문

학생 2 : 디스토피아의 정의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학생 1: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디스토피아 개념에 밑줄치고 1번이라고 표시해놓을게요. (나)의 첫 문단에 디스토피아의 개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네요. (나)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야하겠죠.

지문

학생3: 나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형상화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2: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그런데 작품 속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인 장면은 문제가 된다면?

=토의(토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학생 3의 말을 동의하는 형태의 말을 했죠. 이런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특정 학생이 특정학생 의견에 동의했냐 반대했냐 동의했다면 어떻게 의견을 보완했냐 이런걸 물어봅니다. ㄱ은 동의하는 문장이니 당연히 주목하며 읽어봐야겠죠. ㄱ에서 앞선 말에 대해 동의를 표하고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ㄱㄴㄷ에선 너무나 다양한걸 물어볼 수 있으니 이정도만 잡고 바로 39번의 1번선지를 확인해보려 가죠.

39번 문제 선지 ①

① ㉡ :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 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효율적 전략을 세워놓고 바로 보니 바로 지워집니다. 지문을 다 읽고 봤다면 또 다시 ㄱ을 읽어봐야 할겁니다. 기억이 안날테니까요. ㄱ에선 사례를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어놓고 가야겠네요.

지문

학생3: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학생1: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학생 3 :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학생 3과 학생 1의 대화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잡아주세요. 어떤 내용을 제시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는지, 둘의 대화과정에서 동의나 반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우선 학생 1의 문장에 밑줄을 그어놓고 2번이라고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2번째 내용으로 자극적 장면이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 써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학생 3의 두번째 발화에서 동의를 표하는 말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잡고 가야겠죠 38번과 39번 각각 확인해봅시다.

38번 문제 선지 ③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학생 1의 발화를 보면 ~그렇지?라는 표현을 통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적절한 선지입니다.

39번 문제 선지 ②

② ㉠ :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지문에선 메시지를 못본다고 했는데 선지에선 메시지의 중요성을 언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치 않은 선지입니다.

지문

학생2: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 읽어 봤어. 「멋진 신세계」 라는 작품인데 과학 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야.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서 놀라웠어.

학생 3 : ㉠ 어, 나도 그 소설 봤는데,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학생 2 :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에도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학생2와 학생 3의 대화과정입니다. 실제 작품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글로 적힌다면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겠네요. 밑줄 긋고 3번이라고 적고 갑시다. 그리고 바로 39번의 3번선지를 볼게요.

39번 문제 선지 ③

③ ㉠ : 대화의 내용을 상기하며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 전혀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적절치 않은 선지네요.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에 없는 내용의 선지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선지 볼 때 판단이 애매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해당 문제 선지의 대부분은 적절치 않은 선지입니다. 넘어가고 확실한 선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지문

학생1: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 줄래?

학생 3 : ㉡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상을 비판한다는 거지.

학생 1 :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3: ㉢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재의 사회 문제가 극대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의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학생1: 아,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학생 1과 학생 3의 대화과정입니다. 우선 38번이 엮여져 있으니 학생 1의 발화 먼저 보볼게요. 첫 번째 발화에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번째 발화에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면서 이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4개의 적절한 선지가 나왔고 나오지 않은 하나의 선지. 즉 2번이 정답이네요.

38.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 ②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 ④ 대화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 ⑤ 대화 참여자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심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건 ㉠과 ㉡입니다. 읽고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죠.

39번 문제 선지 ④

④ ㉡ : 질문에 답변하며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아예 지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볍게 지워냅니다.

39번 문제 선지 ⑤

⑤ ㉢ : 앞선 발화 내용을 재진술하며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말한 말을 다시 진술하며 상대방의 질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해당 선지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처리해버리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상태에서 한번만 읽고도 선지들을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던네요.

지문

학생2: 응,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학생1: 그래, 일단내가초고를쓸테니나중에점검부탁해. 모두들 고마워

글을 어떻게 쓸 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학생 2의 발화에 밑줄 긋고 넘버링 쳐줍니다.

<(나)지문 분석>

지문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몰이가 심상치 않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전 세계를 사로잡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유토피아와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린 이미 이 내용을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 빠르게 읽되 앞에서 넘버링으로 잡았던 내용들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만 빠르게 확인하고 갑시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건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 2가 언급했던 기사를 통해 이슈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네요. 이거 두 개 정도 잡고 가면 됩니다.

40번 문제 선지 ①

① 디스토피아의정의 :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

40번 문제 선지 ①

①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예/아니오)
•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도 다루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했는가?	㉤

지문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디스토피아 작품 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에서 언급했었던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실에 끼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니 가볍게 읽되 이거 나왔던 거야! 이거 안나왔던거야!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글을 읽어주면 됩니다.

40번 문제 선지 ②

② 디스토피아 작품의 표현방식 :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해당 지문에선 자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은 지문에 없는 말입니다. 바로 답이 2번으로 나오네요. 앞으로의 글부터는 40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42번 문제 선지 ②

②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작품의 인기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지문

그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이 극대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하므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디스토피아 작품은 과학 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을 소재로,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암울한 미래상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것도 나왔던 내용이죠. 디스토피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2번 문제 선지 ③

③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지문

물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때문에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가령, 디스토피아 작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이에 종속당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작품의 예시를 언급하고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추가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내용제 집중하기 보단 그냥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나왔냐 안나왔냐 수준으로밖에 안 물어봅니다.

42번 문제 선지 4

④ 디스토피아 작품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므로 작품의 인기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지문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하며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습니다. 남은 문제는 42번의 5번선지 뿐이죠. 가볍게 읽고 5번선지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42번 문제 선지 5

⑤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 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지문에 없는 내용이죠. 정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41.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디스토피아 작품의 주제 의식을 반영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낼 것.
 -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디스토피아란 무엇인가
 -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을 진단하다
- ② 디스토피아, 우리 사회의 자화상
 - 디스토피아 작품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 ③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토피아 작품
 - 목직 한 메시지를 가볍게 다루다
- ④ 디스토피아 작품 열풍,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
 -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다
- ⑤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디스토피아 세상
 - 디스토피아 작품을 통한 새로운 세상과의 대화

해당 지문에선 자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은 지문에 없는 말입니다. 바로 답이 2번으로 나오네요. 앞으로의 글부터는 40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두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남은 케이스는 문제 상황에 대한 글+협상, 강연(글)+소감의 형태인데 사실상 빈도수가 매우 낮습니다. 협상의 경우는 협상을 참관한 소감을 쓰는 형태나 짧게 문제상황에 대한 글을 제시해주는 형태가 나오고 그 뒤에 협상지문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상 토의+작문의 형태랑 거의 구조가 같습니다. 결국 협상도 토의(토론)이니까요.

사실상 같은 것을 물어보죠. 그리고 남은 케이스인 강연+소감은 첫 번째 케이스였던 토론+소감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에서 파생된 구조들이니 앞에서 배웠던 두 케이스만 잘 익혀도 충분히 대비가 될겁니다. 충분히 연습문제를 통해 연습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파이널 모집

수능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불안정한 국어 점수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국어 점수에 불안하신가요?
아직도 국어가 감으로만 푸는 것 같고 막연한 느낌이 드시나요?

수능국어는 명확한 체계가 존재합니다. 감으로 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풀이 역시 존재합니다.
남은 기간 막연한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체계를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체 수강생 모두를 각자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결국 제 이론과 체계가 가장 수능에 적합함을 증명할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럼 학생이 원하는 그 이상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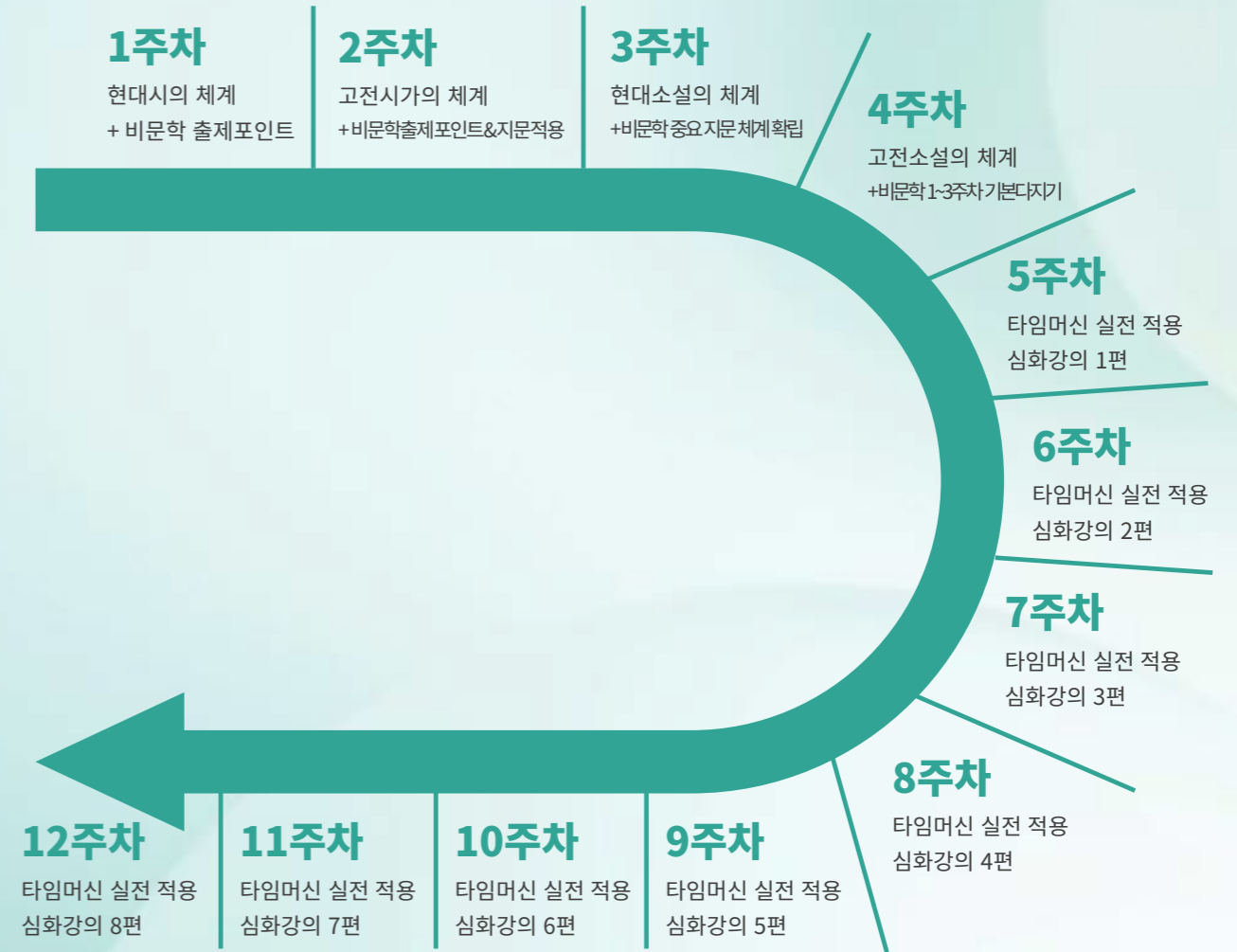
국어를 감으로만 푸는 학생

기출을 통해 구축된 PCG만의
명확한 국어 체계로 감이 아닌 명확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국어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학생

이미 올해 많은 수강생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이 실패했다면 따라오세요 보다 확실한 확신을 주겠습니다.

강의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강의 구성은 학생마다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실력에 따라 맞춤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능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생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의와 교재의 퀄리티



배웠던 체계의 적용, 실전적인 마인드 확립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가장 큰 막연함과 어려움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일 겁니다. 분명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새로운 지문에 적용해 보려하니 많이 막막할 겁니다. 지문의 각 문장별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들이 어떻게 출제화되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모두 실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풀이 순서

지문은 어떻게 무엇을 먼저 다루냐에 따라 문제 풀이 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문제 풀이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학생이 고민하지 않아도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풀이 순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플랜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답이 이거야!”라는 풀이가 아닌, 선지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고차원적인 풀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감으로 푸는 풀이가 아닌 명확한 행동의 체계

수능국어는 문제마다 명확한 체계와 행동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 풀이의 정확도와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문제의 정밀 분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푸는 것이 아닌 일관적인 풀이의 체계로 문제를 연습하여 명확한 체계를 빠르게 확립합니다.

1대 1 피드백

사실 학생들이 점수가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본인 풀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타겟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통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국어 문제집의 해설은 단지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답이 이거야!” 라는 식의 해설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파악이 힘듭니다.**

수백명의 학생들을 과외하며 얻은 경험으로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구난방식의 공부**가 아닌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공부**를 추구합니다.

강의의 진행에 따라 본인이 어려운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별하고 단순히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공부가 아닌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공부를 추구합니다.

강사의 직접 피드백을 통해 확실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수강평

선생님 89점입니다. 화작은 다 맞았고 비문학은 3개, 문학은 2개 틀렸습니다. 아직 화작이랑 고전소설은 선생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마지막 문제는 제대로 못 풀었습니다. 거의 4-5등급이었는데 정답률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재서 문 건 정답률 오연만이라서 시간배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재 지금까지 해왔던 거 꾸준하면 하연 1등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3월 강의 보면서 점검하겠습니다!

89라니 엄청난 발전이네요! 1점이 88인가 89이니였네요 학생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이런 상승이 있었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국어 정복 정말 가능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7월 두달만에 4 5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다니 더 열심히 선생님 수업 따라가겠습니다!

3월 풀었습니다. 진짜 3등급 이상을 삼수할 때까지 맞은 책이 없는데 94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고득점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듣 거지만 진짜 많이 안되네요 문학이 어려웠는데 배운대로 푸니까 정말 쉽게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오르비 닉네임

PCG

검색

1. 오르비 검색창에 '닉네임 : PCG' 검색

- 왜 이 문제가 합리유형으로 선정되었을까? 17
- 현대사의 모든 것 17
- 표현상의 특징에서 시간이 길린다면 28
- 1대1 무료 피드백 컨텐츠 모집 6
- 내가 기술을 분석했던 방식 40
- 20수능 비문학 교재 무료 배포 및 7월 비문학 해설 10

2. PCG 프로필 클릭



활동

배지 0

팔로잉

회원 프로필

<https://open.kakao.com/o/sGQGoZW>
e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클릭